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 여름을 맞이합니다.  
**임핑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동IC 구간 광복동역 인근  
 (명동출발) 1C 영수증 100% 결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nergy.co.kr 0801-320-7700



한국의 첫 금메달 기대주인 김찬미가 베이징 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7일 연습사격을 하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축구 8강 커트라인?  
 1승 2무 '승점 5'

한국은 남자 축구에서 2004 아테네 대회 8강을 넘어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메달권 진입의 1차 관문은 카메룬, 이탈리아, 온두라스 등 만만찮은 상대들을 넘어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8강 진출을 위해 필요한 승점은 얼마일까. 역대 기록은 1승 2무는 해안 안전권이라고 말한다.

1996년부터 2004년 아테네 대회까지 세 차례 올림픽에서 8강 진출국의 평균 승점은 5.58점이었다.

5점과 6점이 각각 8개국, 7점이 3개국, 9점도 1개국이 있었다. 세 차례 대회 중 조별리그에서 승점 5를 획득한 팀은 아테네 대회 전승 우승국인 아르헨티나가 유일하다. 물론 4점으로 8강에 오른 경우도 네 번이나 있었다. 1996년 가나가 1승1무1패로 C조 2위를 차지해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당시 같은 조에 있던 한국도 1승1무1패의 성적을 거뒀지만 골득실차에서 밀려 아쉽게 탈락했다.

2000년 허정무 감독이 이끈 한국은 칠레, 스페인과 2승1패로 동률을 이뤘지만 역시 골득실차로 B조 3위로 밀려났다. 하지만 김호곤 감독이 이끈 아테네 대회에서는 1승2무로 8강에 올랐다.

탕! 전남여고 출신 김찬미 '첫 金' 쏜다  
 내일 오전 여자 10m 공기소총 출전



전남여고 출신 김찬미(19·기업은행)와 김여울(21·화성시청)이 9일 베이징 올림픽 사격 여자 공기소총에서 한국 대표팀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작년 아시아선수권대회 준우승자인 김찬

미와 김여울은 9일 오전 8시30분(한국시각 오전 9시 30분·이하 현지시각) 베이징 사격관에서 열리는 여자 10m 공기소총에 출전, 지난 대회 우승자 두리(중국), 준우승자인 리우보프 갈키나(러시아), 4월 프레스올림픽 우승자인 카트리나 에몬스(체코), 결선 세계 기록(505점) 보유자인 소냐 파일슈퍼터(독일) 등과 겨룬다.

전 종목 통틀어 첫 금메달이 걸려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이 경기에서 둘은 메달권 진입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결선에 강한 장점을 심분 발휘할 경우 금메달도 노릴 만 하다고 코칭스태프는 보고 있다.  
 김찬미와 김여울은 총 48명이 나서는 본선(40발·만점 400점) 8위 안에 진입할 경우 본선 성적을 안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하는

결선(10발·만점 109점)에 나선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이 종목 정상에 오른 여갑순의 패기를 16년만에 재연하려는 김찬미는 국내 마무리 훈련에서 실시한 두차례 실전 연습에서 올림픽기록과 타이인 본선 399점을 잇달아 쏜데 이어 베이징에서의 적응 훈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김여울도 베이징 현지에서 398~9점대를 겨루 기록하는 등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또 낮 12시에는 남자 10m공기권총에서 에이스 진종오(29·KT)와 신에 이대명(20·한체대)이 본선(60발·만점 600점) 590점대를

수시로 쏘는 탄종량(중국)과 레오니드 예키모프(러시아) 등에 도전장을 내민다.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48명이 출전하는 이 종목에서는 최근 꾸준한 기록상승을 보인 이대명의 선전에 특히 기대를 걸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남자 트랩의 이영식(35·창원시청)도 본선 첫날 경기에 나선다.

이번 대회 금메달 2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격대표팀의 변경수 감독은 "선수들이 베이징에서도 괜찮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면서 "당일 컨디션만 좋으면 첫날부터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고 말했다.

'마린보이' 박태환 금빛 스타트



내일 밤 자유형 400m 예선  
 해켓 등 라이벌과 한판 승부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금빛 물살을 가를 준비를 마쳤다.  
 2004 아테네올림픽 최연소 대표 선수로 나섰다 자유형 400m 예선부터 부정 출발로 실격되며 눈물을 흘렸던 박태환은 8일 개막하는 2008 베이징올림픽까지 4년을 기다렸다. 지난 3일(이하 한국시각) 베이징에 도착, 현지 적응훈련을 해 온 박태환은 9일 밤 8시28분 올림픽 메인 수영장인 워터큐브에서 시작되는 자유형 400m 예선부터 금메달 도전을 시작한다.  
 자유형 400m는 준결승 없이 바로 예선 기

록 상위 8명이 겨루는 결승에 들어간다.  
 정확한 시각은 10일 오전 11시21분. 출발 버저와 함께 선수들이 일제히 물 속에 뛰어든 뒤 3분40여 초가 지난 시점이 바로 박태환의 금메달 꿈이 실현될 순간이다.  
 올해 세계 랭킹 상위권에 올라 있는 모든 선수가 다 박태환의 라이벌이다. 그랜트 해켓(3분43초15·호주)과 라슨 켄슨(3분43초53·미국), 피터 밴더케이(3분43초73·미국), 장린(3분44초97·중국), 유리 프리루코프(3분45초10·러시아) 등이다.  
 박태환은 4월 동아수영대회에서 작성한 3

분43초59로 랭킹 3위에 올라있지만 훈련 과정에서 낸 기록으로는 2001년 아산 소프카 세운 3분40초08의 세계 기록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에 입성하면서부터 "세계 기록을 깨뜨리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다. 초반부터 힘이 좋은 서양 선수들과 치열한 레이스를 벌이는 쪽으로 전략을 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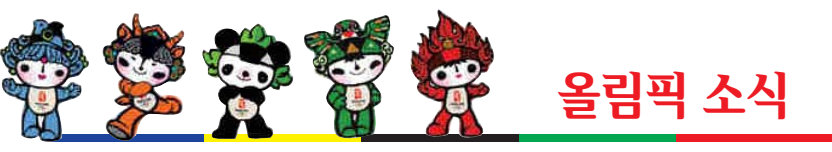
자유형 400m가 끝나도 박태환은 쉬 수 없다. 같은 날 밤 7시54분부터 자유형 200m 예선이 이어지고 다음날인 11일 오전 11시10분부터 준결승이 계속된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가 세계 기록을 보유한 종목이어서 금메달은 어렵더라도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인 피터 판텐 호엔반트(네덜란드)가 출전을 포기했기 때문에 12일 오전 11시13분 시작되는 결승에서 박태환은 은메달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양궁 금빛 활시위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7일 양궁대표팀 박성현(왼쪽)과 윤유희가 베이징의 양궁 보조경기장에서 과녁을 향해 힘차게 시위를 당기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 소식

8년 이어온 남북한 공동 입장 끝내 무산

○남북한이 2000년 시드니올림픽이후 8년간 이어 온 국제종합대회 개최권 공동입장이 결국 베이징에서 파국.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은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둔 7일 "오늘 IOC로부터 더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 남북한 공동입장이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고 소개.  
 자크 로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오후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의 공동입장이 무산됐음을 확인.

이탈리아 축구 온두라스 완파

○이탈리아가 남자축구 개막전에서 골퍼레이드를 펼치며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  
 이탈리아는 7일 중국 친화도 올림픽스

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D조 1차전에서 세바스티안 조빈코(유벤투스)의 선제골과 주세페 로시(바이레알)의 페널티킥 추가골, 로베르트 아쿠아프레스타(칼리아리)의 썩기골로 3-0 완승.  
 이로써 승점 3을 먼저 챙긴 이탈리아는 카메룬과 1차전을 앞둔 한국, 첫 판을 내준 온두라스와 8강 진출 경쟁에서 한 발 우위.

이형택, 2회전 페더러와 일전

○베이징올림픽 테니스 남자단식예 출전한 이형택(32·삼성증권)이 2회전에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와 만날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에 관심.  
 7일 베이징 시내 스위스호텔에서 열린 대진 추첨 결과 세계 96위 이형택은 1회전에서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한 라파엘 아레발로(447위·엘살바도르)와 맞붙게 됐는데 아레

발로는 이형택이 주로 뛰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급 대회보다 두 계단이 아래인 퓨처스에서 주로 활약하는 선수로 이형택이 힘들이지 않고 꺾을 수 있는 상대.

야오밍 중국 선수단 기수로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야오밍(휴스턴)이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선수단 맨 앞에서 오성홍기를 들고 입장.

미국프로농구(MBA) 스타인 야오밍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자 110m 허들 금메달리스트인 '황색탄환' 류샹과 남자 농구팀의 신성 이젠렌(뉴저지 네츠) 등 강력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중국을 대표.

'티벳' 평화 해결 요구 편지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여자 높이뛰기 1인자 블랑카 블라지치(크로아티아)와 남자 110m 허들 세계기록 보유자 다이론 로블레스(쿠바) 등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는 40여 명을 포함한 전 세계 스포츠 선수 127명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티벳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권 개선 등을 요구하는 편지를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AFP통신이 7일 보도.

성화 최종 점화  
 체조 리닝 유력



(李寧·45·사진)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현역 선수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성화 점화에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을 실현할 것이라는 발언에 주목해 성화 점화자는 하늘을 날아서 점화하는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게 날 수 있는 운동 선수는 체조 선수와 다이빙 선수밖에 없다며 리닝에 주목하고 있다.

리닝은 지난 1980년대 중후반 국내의 체조대회에서 모두 106개의 금메달을 따내면서 중국의 스포츠 영웅으로 떠올랐다.

알림  
 Beijing 2008  
**올림픽 공동취재단 파견**  
 "60억 지구촌 대축제 감동 생생히 전달"

광주일보사는 오는 8월8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보도를 위해 강인일 보·경남신문·경인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 등 전국의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올림픽 공동취재단'을 운영합니다.

노정현·채정민·김영준 기자로 구성된 올림픽 공동취재단은 중국 현지에서 28개 종목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격돌하는 한국대표팀의 활약상을 독자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노정현 기자, 채정민 기자, 김영준 기자

光 州 日 報 社